

2014 년 1 월 브라질 선교 편지

올해는 유독히 겨울이 춥다는 소식을 이곳에서도 듣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곳은 더없이 덥지만 오후가 되면 어김없이 소나기가 쏟아지는 아열대성의 기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가 더위와 먼지들을 씻어주기에 견디기가 수월하지요.

지금 브라질은 올해 6 월부터 시작되는 월드컵으로 인하여 그 때쯤의 모든 항공편이 고갈되어 있다고 합니다. 호텔도 이미 예약들이 완료되어있는 상황이고, 축구로 인한 물가가 천정부지라 경기를 중계하려던 외국 방송사들이 포기를 하고 중계 계약을 취소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한국이 이번 경기에 출전하기에 한국에서 “붉은 악마” 인지 하는 응원단들이 대거 관광겸 오려고 하지만 항공표가 없어서 오지 못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선교 편지를 통하여 기도 후원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것은 **브라질의 치안에 대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래에 실은 사진은 올 1 월 3 일에 강도들에 의하여 불에 타 죽은 6 살 짜리 여아의 사진입니다. 어제 이곳의 가장 유력한 시사지인 **Veja (Look!)** 에 실린 기사 (1 월 15 일자) 를 보았기에 기도 제목으로 알려드립니다.



사진 아래에 있는 기사를 번역해 드립니다.

“411 번째 피해자”

“아나 끌라라, 6 살먹은 여아가 2014 년 1 월 3 일 마라냐에서 강도들에 의하여 산체로 불에 태워졌다. 올 해 말까지 그들은 49,700 명의 죄없는 브라질 사람들을 더 죽일 것이다.

이 범죄와의 전쟁을 이길 정부는 도데체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1 월 15 일자 **Veja** 에 실린 기사입니다. 올해 들어와 사흘밖에 지나지 않은 1 월 3 일에 이 어린아이가 벌써 411 번째로 살해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49,700 이라는 숫자는 2012 년 일년에 5 만명 이상이 살해 당하였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2014 년도 최소한 같은 수의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는 예상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지금의 범죄의 추세로 보아서는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평균 한달에 4,000 명이 살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악무도한 범죄는 경찰의 통제를 이미 오래전에 벗어났고, 세계에서 엘살바도르, 혼두라스, 베네주엘라 다음으로 살인이 많은 국가라는 오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중남미 국가들입니다.

브라질은 **Drug** 을 팔다 잡히면 검거되지만, **Drug** 을 사거나, 사용하는 것은 무죄로 취급하는 나라입니다. 도심에서는 경찰 앞에서 **Crack** 이라는 마약을 당당히 하여도 경찰이 막지 않습니다. 썩 빠울로 중심가에 **Cracolandia (Crack Land)** 라는 지역이 있고 범죄의 소굴입니다. 범죄를 하다 잡혀도 감옥이 포화상태라 놓여납니다. 18 세 미만은 미성년이라고 하여 경찰서에서 등록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범죄자들이 전혀 두려움이 없이 마음대로 행하는 나라입니다. “노동자당”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법을 가볍게 하고, 감옥에 들어간 범죄자들의 가족들에게 생활 수당을 주며 인심을 사려고 하기에 잡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이 모두가 “노동자당” 의 당수였던 **Lula** 전 대통령과 지금의 **Dilma** 여자 대통령이 통치하는 국가입니다. 의사들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큐바에서 4,000 명의 정체를 알수 없는 의사들을 얼마전 브라질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 중에 상당 수가 공산 테러리스트라고 합니다.

또 2027 년 까지 국민들에게 극비에 부치기로 하고 큐바에 10 억불 가까운 돈을 비밀리에 주었다고 합니다. 2027 년까지 자신들이 통치할 수 있기에 국민의 여론이 두렵지 않다는 행정부의 자신감에서 나온 것입니다.

의법부와 사법부는 행정부의 꼭두각시의 역할만 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이익과 부를 위하여 나름대로의 부정 부패를 일삼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 반정부 테러리스트였던 현 **Dilma** 여자 대통령이 **Lula** 전 대통령과 노동자당의 뒷받침을 얻어 행하는 일들입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도 현 대통령의 재선이 확실하다는 어두운 소식입니다.

공립 중고등 학교는 수업 일자 보다 수업이 없는 날이 더 많습니다. 학생들이 선생을 때리고, 목숨을 위협하는 일이 많아 선생들이 학교에 가지를 않기 때문이지요. 선생들에게 주는 사례가 너무도 적기 때문에 선생들도 **Lay-out**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립 중고등 학교는 미국의 주립대학 수준의 학비를 내야합니다. 자녀 하나를 위하여 매달 약 1,000 불 이상의 상상을 못하는 학비를 내어야만 합니다.

양식이 있는 젊은 사람들은 이 나라에 소망이 없다며 나라를 떠날 생각만 한다고 합니다.

50 km 떨어진 신학교에 지난 주에 두번에 걸쳐 5 명의 떼 강도가 난입하려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치안의 무정부와 같은 상황들을 보면 과연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가 하는 회의가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 있음을 믿기에 비록 한알의 작은 밀알 같은 길이지만,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암담한 소식만 드렸지만 이것이 밖에서 알지 못하는 브라질의 실태이기에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어두움의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진 작은 빛을 발하여야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만 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그래도 빛이 비추이는 미국과 같은 세상에서는 빛의 필요성이 오히려 적지만, 어두움이 깊은 이런 곳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심을 믿으며, 이러한 곳에서는 작은 빛도 더 밝고 소중한다고 믿기에 오늘도 소망을 가져 봅니다.

말씀 드린 것 같이 브라질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과 감동으로 범죄자들이 자신의 악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자각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물질과 명성과 기복주의 적인 가르침만 부르짖는 거짓 목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회개하고 제 길을 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소망이기에, 부족한 저희들 이 길을 전심을 다하여 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하여,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심과 건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한분 한분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2014 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드리며,

2014 년 1 월 17 일

브라질에서